국토교통부 / Incheon Airport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17. 1. 17.(수) 총 5매(본문5)	
담당부서 공항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나웅진, 사무관 천홍식/허나윤, 주무관 권오준 • ☎ (044) 201-4328, 4337, 4333	
담당부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언론홍보팀	담 당 자	• 팀장 조상현 • ☎ (032) 741-2112	
보 도 일 시	2017년 1월 1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17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제2 여객터미널 18일 공식 개장‥ '항공권에 기재된 터미널 꼭 확인'

이용객 혼선·오도착 방지 위한 종합대책 수립 시행

◈ 대한항공·델타·에어프랑스·KLM네덜란드 항공사 이용객은 제2 여객터미널 탑승
◈ e-티켓에 탑승 터미널 별도 표기·출국 전 안내문자 발송
◈ 터미널 간 5분 간격 무료 셔틀버스 운행

□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이 1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.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제2 여객터미널 개장을 계기로, 공항 이용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5위 허브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.

○ 제2 여객터미널은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'09년부터 터미널 건설, 접근 도로·철도 건설 등에 총 4조 9천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건설을 마치고 종합점검 및 평가 등 운영을 준비해왔다.

○ 제2 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, 델타항공, 에어프랑스항공, KLM네덜

란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운항하게 되며, 제1 여객터미널과는 분리 운영되어 인천공항은 앞으로 2개의 복수 터미널로 운영된다.

【 개장일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모습 】

□ 제2 여객터미널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4시20분에 들어오는 대한항공 편이며, 필리핀 마닐라로 7시 55분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기가 제2 여객터미널에서 처음으로 출발하게 된다.

○ 제2 여객터미널은 개장 첫 날, 항공편 총 235편(출발 117편, 도착 118편)이 여객 총 51,161명(출발 27,254명, 도착 23,907명)을 운송할 계획(1.15일 집계기준)이다.

□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첫 출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현장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어, 하나의 축제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.

○ 인천공항공사, 항공사 등은 제2 여객터미널 첫 탑승객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 중으로, 탑승객 중 행운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.

○ 공항 입주 상업시설도 그랜드 오픈 기념식, 오픈기념 특별할인, 증정품 제공, 경품 추첨, 특별 환전우대 등을 통해 제2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.

○ 개장을 기념하여 탈춤, 클래식, 국악, 뽀로로 공연 등 이용객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공연도 잇따른다.

* 탈춤(격리대합실 정원, 2회), 클래식(격리대합실 정원 동측, 5회), 국악(1층 입국장 동서편, 6회), 뽀로로공연(격리대합실 서편 패밀리센터 앞, 3회)

【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은 무엇이 달라지나? 】

□ 첫째, **이용객이 실제 탑승하는 항공기에 따라 터미널을 찾아가야 한다.**

○ 제1 여객터미널은 아시아나, 저비용항공사, 기타 외국국적항공사, 제2 여객터미널은 대한항공, 델타항공, 에어프랑스항공, KLM네덜란드항공이 운영하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경우 찾아가면 된다.

○ 주의할 점은, 항공사 간 공동운항(코드쉐어)하는 경우, 티켓을 구입한 항공사가 아니라,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에 따라 터미널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. 이용객별로 어떤 터미널을 찾아가야 하는지는 “티켓”에 표기되어 있으니, 티켓을 한 번 만 더 확인하면 터미널을 잘못 찾아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.

□ 둘째, **이용객이 직접 티켓도 발권하고 짐도 부칠 수 있다.**

○ 제2 여객터미널 중앙에는 셀프 서비스 존이 구축되어 이곳에 설치된 셀프 체크인 기계와 셀프 백드롭 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티켓을 발권하고 짐을 부칠 수 있다.

○ 셀프 체크인 기계에서는 간단한 여권 스캐닝을 통해 발권이 가능하다. 발권된 티켓과 여권을 셀프 백드롭 기계에 인식시키면 기계가 열리는데, 기계에 짐을 놓으면 무게를 재고 짐표가 발급된다. 이 짐표를 붙이면 짐이 자동으로 처리된다.

□ 셋째, **신형 원형검색대가 도입된다.**

○ 제1 여객터미널에서 사용되는 문형 검색대는 금속물질만 탐지가 가능했으나, 제2 여객터미널에 도입되는 원형검색대는 비금속물질도 탐지가 가능하다.

○ 보안요원이 추가 검색이 필요한 부분이 모니터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빠르게 보안검색을 마칠 수 있다.

○ 원형검색대는 초고주파 방식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, 승객의 신체 이미지가 아바타 형식으로 변환되어 잠시 동안만 표출되고 저장, 출력도 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도 없을 것이다.

【 공항고속도로 요금소 명칭변경: 신공항 요금소 → 인천공항 요금소 】

□ 국토부는 1월 1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추어, 공항 전용도로인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**신공항 요금소의 명칭을 인천공항 요금소로 변경한다.**

* 인천 중구 운서동~경기 고양 강매동을 잇는 38.2km의 고속국도

○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2000년 11월 개통하였으며, 그간 수도권과 인천공항을 잇는 핵심 교통시설로 큰 역할을 해왔다.

□ 당초 인천공항이 '수도권 신공항'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항고속도로 요금소에도 '신공항' 명칭을 사용하였으나,

○ '96년 3월 '인천국제공항'으로 공식 명명되었고 최근에는 김해·대구·제주 등에서도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어,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은 요금소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.

○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의 국제적 인지도, 공항고속도로의 상징성, 지자체·지역주민·민자 법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인천공항 요금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인천공항의 관문 요금소에도 ‘인천공항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제2 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인천공항의 브랜드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【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운영 대비체계 】

□ 국토부, 인천공항공사는 제2 여객터미널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, 개장 전날부터 **비상대응체계를 운영**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.

○ 기존 공항시설, 수하물처리, 운영인력, 상업시설, 항공사 준비, 보안, 대중교통 등 분야별로 운영되던 개장지원 TF, 현장점검 TF, 상주기관준비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「개장 준비단」을 확대 편성하여 개장일(1.18일)과 개장 후 안정화 기간에 대응토록 하였다.

○ 현장에서는 제2 여객터미널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,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피드백해나갈 계획이다.

□ 특히, 처음으로 실시되는 2개 터미널 분리운영에 따라 터미널을 잘못 찾아가는 오도착 여객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, 이에 대해 다양한 대응계획을 준비했다.

○ 오도착 여객은 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셔틀버스, 또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빠르게 터미널 간 이동이 가능하다.

○ 또한 출발시간이 임박하여 터미널을 잘못 찾아간 여객들에게 “I’m Late"카드를 발급하여, 체크인카운터 우선 수속, 보안검색 전용창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□ 국토부 관계자는 “1월 18일부터 인천공항이 제2 여객터미널을 개장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간다. 더 편안하고 빠르고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히며,

○ “인천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항을 방문하기 전에 항공권에 기재된 이용 터미널을 한번만 더 확인해주기를 부탁드린다”고 당부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천홍식 사무관(☎ 044-201-433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